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 수기 부문

작품 제목

우린 뜨거웠다. 저 태양보다 더

수기작성 (공백포함 5,000자 이내)

캄보디아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특파원이 되고자, 아니 실은 내 미래를 위해 'KT&G 희망특파원 해외봉사'라는 거창한 활동에 지원했다. 사실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봉사 단체에 있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기에, 해외봉사라는 단어에서 '봉사'라는 두 글자는 나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도 활동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저 외국 한번 다녀온다는 부족한 마음 뿐 이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면접심사 및 개인 발표를 거쳐 희망특파원이 됐다.



<면접 당시 개인발표 사진>

처음 씨엠립에 도착했을 땐 캄캄한 밤이라 그대로 짐을 풀고 잠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식사를 위해 일어나 다 같이 로터스월드를 산책하는 순간 나는 실감했다. 낮게 뜬 뭉게구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열대나무, 뜨겁게 내리 쪼는 햇빛을 받는 순간, 확실히 캄보디아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첫 교육봉사 날, 나를 비롯한 우리 34차 단원 모두들 긴장했다. 낯선 우리를 보고 도망가진 않을까, 준비했던 교육봉사 수업들을 잘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며 걱정하던 우리 조 친구들에게 조장인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온다고 생각하면돼~"라는 말 뿐이었다. 땀 뻘뻘 초등학교에 도착한 후 나는 우리 조 친구들을 그렇게 도착한 교실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런 고민은 하늘너머로 날리게 되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도 아닌, 첫날에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다.



<첫 시간,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우리>

첫 날, 첫 수업시간 우리의 일과는 아이들의 한글로 된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한국어를 써주었다. 당시 날씨가 워낙 더워 우리 단원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우리의 어색한 발음에 좋아라 활짝 웃어주었다. 그런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나오는 웃음을 보면 더위가 뭐가 중요할까, 이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단원들 모두가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매 번의 교육봉사는 이렇게 더웠지만 더위의 짜증은 느껴지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 더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교육봉사가 끝나면 점심을 먹은 후 노력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력봉사를 하는게 싫었다. 사실 나

는 1년전 베트남으로 문화교류 봉사를 다녀왔었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며, 무거운 것을 나르고 힘든 일을 하는 노력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 가서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벽돌과 흙을 퍼 담아 날랐다. 도서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시켜야 했기에 34차 단원들 모두 힘든 내색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내게는 너무 감동적인 순간 이었다. 이러한 마음이 들고 난 후 노력봉사가 하기 싫다고 아주 잠시나마 칭얼했던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 일 것이다. 우리의 몸이 힘들다 보니 서로서로 노래도 부르고, 서로의 연애태극, 맨정신에는 하기 쉽지않은 각자의 고민들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은 금방 지나갔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더욱 많이 가까워 졌음을 느꼈던게 바로 노력봉사이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그리고 색다른 경험의 노력봉사였다>

우리는 노력봉사가 끝난 후, 단원 전체가 모여 조별 및 전체 평가회의를 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로가 느꼈던 점, 부족했던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가가 아닌 조언과 응원을 해주는 시간이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학점부터 시작해 영어성적, 인턴경험 등등 모든 것들이 경쟁 그자체였고 연속된 평가의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평가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 조별로 모여 다음날 있을 교육 봉사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다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다음날 일정이 5시에 시작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하나 없이 각자 기획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었고 서로의 수업을 공유했다. 너무나도 열심히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친구의 수업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옆에서 열심히 보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조선생님으로서 기타를 밤새 연습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일까? 사진이 참 잘 나왔다>

이렇게 모든 수업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수업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데릴러온 버스를 기다리면서 꽃

을 직접 가져와 목걸이를 만들고, 다발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계속 해서 주기만 했다는 것 이였다. 물론 우리도 한국에서 이것저것 준비해가서 전달해 주었지만, 아이들이 주는 그것과는 무엇인가 달랐다. 분명 우리가 만들어서 준 좋은 것을 가져가지 않고 다시 예쁘게 만들어 나에게 주려는 아이들을 보며, 아 이 아이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과 운동회 전 마지막 작별을 했다.

마지막 운동회 날, 우리는 모두 신났었다.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맡았던 역할은 운동회 MC 즉, 진행자였다. 이를 위해 운동회 팀과 매번 조별 모임이 12시넘어서 끝나면 새벽에 모여 준비를 했다. MC는 내가 원해서 했던 자리였고 하고싶었지만, 운동회팀은 나를 위해 운동회를 구성해 주었고 대본을 써주었다. 그리고 운동회 준비 하지 말고 MC연습만 잘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다. 이렇게 배려를 받으니 새벽 3시,4시가 되어도 진행의 연습을 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운동회 당일 날 MC로서 4시간 넘게 땀별아래 소페악 통역사와 내내 서있었지만 버텨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운동회 팀의 배려 덕분 이였다. 그리고 나를 전담해 물을 주고 시간을 체크해준 채림이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운동회 당시의 나와 통역을 하는 소페악,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나의 목이 다 쉬어가며 운동회를 마치고 나니 우리가 노력봉사 했던 도서관의 헌판식을 진행하였다. 도서관을 가리고 있던 천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도서관의 모습은 그저 아름다웠다. 13일간의 우리들의 땀과 노력의 흔적들이 도서관 모든 곳에 남아있었다. 최종적으로 나의 노력봉사의 결정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도서관이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뿌듯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도서관의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도서관 앞에서 단체사진~>

모든 봉사일정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투어 일정이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모두 즐겁게 캄보디아의 문화를 탐방했었다. 앙코르와트를 갔으며 그안에서 탔던 툭툭이, 야시장에서 먹었던 각종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는 모두 13일의 일정이 끝나감을 아쉬워했다.



KT&G 제 8회 상상실현 콘테스트 후기를 쓰기위해 당시 사진첩을 하나하나 바라보니 당시 그순간의 모습들이 스쳐지나 가는 것 같다. 나에게 해외봉사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였다. 마치 가기전날 잠들어서 다음날 오후에 눈을 떠보니 13일 동안의 이야기가 머리 속에 마치 잔상으로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하지만 나에게 이번 KT&G 희망특파원 해외봉사는 지나간 대로 그런의미로

남아있을 것 같진 않다. 아직 나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 맑은 그드르이 눈망울들을 잊을 수가 없다. 나의 2016년 여름은 어느때 보다는 아련한 여름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름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지난 6월에는 희망특파원 OB선배로서 후배들의 면접자리에 갔었다. 면접전에 긴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저 또한 1년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제 곧 캄보디아로 소중한 이야기를 쓰러 가실것이기때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이 면접관으로서 참석했던 우리 주현이 1년전에도 같은 면접조에서 같이 면접관이 되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경험이다>

모든 일정이 끝났다. KT&G는 나에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희망특파원으로서 나에게 희망을 주었던 활동이고 어디에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준 활동이었다. 지금 나는 취업생이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당시 모습을 회상하며 잠시나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울 수 있게 해준 이번 KT&G 제8회 상상실현 콘테스트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상 2016년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우리들의 여름의 단상을 마무리하며 ...